

배포일시	2020. 3. 18.(수) 15:00 (총 3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복행 전문관 박찬귀	전화번호	042-863-0367

충남 해상 및 내륙 19일 09시~18시까지, 강풍 주의!

- 최대순간풍속 90km/h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 주의
 - 최대순간풍속 대전·세종·충남 지역 90km/h 이상 예상
 - 천막, 간판, 철탑 등 야외 시설물 관리 철저, 해상 운항 주의
- 19일 아침~낮, 대전·세종·충남내륙 5mm 내외 비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국지적인 소낙성 비



[3월 19일 아침]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(강풍, 소낙성 강수)

[강풍 / 풍랑 전망]

- (강풍) 19일(목) 아침(09시)~저녁(18시) 아침 사이,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져 대전·세종·충청남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
 - 19일 새벽(03시)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져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20일 아침(09시)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
 - 특히, 19일 아침(09시)~밤(18시)까지 최대순간풍속 90km/h(25m/s)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전·세종·충청남도 전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.

- (풍랑) 19일은 서해중부전해상에서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65km/h(18m/s) 이상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2~4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, 천둥·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불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- (유의사항)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, 건축공사장, 철탑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,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한 과수원 낙화 등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하기 바랍니다. 또한 해상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.

[강수 전망]

- 우리나라는 따뜻한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, **19일 아침(09시)~낮(12시)**에 북쪽으로부터 대기 상층(5km 상공 부근)의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대전·세종·충남내륙에는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.

- **예상강수량(19일)**
- 대전·세종·충남내륙: 5mm 내외

[기온 전망]

- 다음 주말까지도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의 공기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전·세종·충남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으며, 평년 대비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
- 다만, **19일 오후부터**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 기온이 10~13도 분포로,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2~7도 가량 낮겠고,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.
- 이후 **20일부터**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,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상승하여 포근해지겠습니다.